

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(*Riptortus clavatus*) 피해해석 및 요방제수준 설정

이건휘, 백채훈, 최만영, 오영진¹

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식물환경과, ¹맥류전작과

국내 콩 자급을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대단위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약제방제가 어려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(*R. clavatus*), 풀색노린재(*Nezara antennata*) 등 다양한 노린재류의 발생과 피해가 늘고 있어 단보 당 생산량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특히, 최근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농가포장에 많이 발생되어 콩 꼬투리를 가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량감소는 물론 종실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켜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대한 피해와 콩 생육시기별 요방제 밀도수준을 설정하여 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수행하였다.

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착협기(R2 stage) 이후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, 동일 발생밀도에서는 콩 생육시기가 빠를수록 피해가 심하였다. 콩 생육시기별 요방제 밀도수준은 5주당 착협기(R2 stage)는 2마리, 립비대시(R5 stage)~립비대성기(R6 stage)는 3~4마리, 성숙시(R7 stage)는 6마리였다.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피해를 받은 콩 종자는 발아능력 감소(98%→47%)로 종자 및 콩나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